

'라틴계 안방' 맥아더 공원에서 8·15 광복절 콘서트

야외음악당 재건축



맥아더 공원 내 야외음악당 레빗파빌리온의 재건축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오는 15일 이곳에서 한국 광복절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 <전한 기자>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맥아더
 파크(MacArthur Park)에서 한여름밤을 수놓는
 '한국 광복절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

맥아더 파크측은 30일 공원 내 야외 음악당인
 '레빗 파빌리언(Levitt Pavilion)' 재건축 기념으로
 기획한 1달 이상 계속되는 여름 콘서트의
 일환으로 오는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한국 광복절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레빗 파빌리언의 재건축 완공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여름 콘서트는 기존 라티노
 공원으로 굳어진 이미지에서 탈피 맥아더 파크를
 활성화시키고 타인종들을 끌어안기 위해 기획된
 것이며 오는 8일을 시작으로 9월16일까지 매주
 월 화를 제외한 매일 릴레이 콘서트가 열린다.

한국 전통 북 공연과 한국 광복절 기념식으로
 시작되는 이번 한국 광복절 기념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김응화 무용단의 축하 공연.
 김응화 무용단은 직접 준비한 창작 무용 '해방의
 그날'과 함께 타인종들이 좋아하는 삼북 한량무
 부채춤 공연 등을 선보인다.

김응화 단장은 "수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한국
 광복절을 기념 라티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맥아더 파크 무대에 서는 이번 공연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이번 공연을 위해 30여명의 단원이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하루 6시간씩
 맹연습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무료 입장으로 웹사이트
www.levittpavilionlosangeles.org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213) 384-5701

박상우 기자 spark@koreadaily.com